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미국인 이제는 일자리 찾고 유지하기 힘들어져
- Bloomberg: 파월 의장, 이번 주 의회 청문회...고금리와 은행 자본 요구 가이드 관련 비판 직면

[미국 금융]

- CNBC: 국채 금리 상승 중... 투자자들 물가 등 인플레이 지표 기다려
- Bloomberg: 어닝 발표 시즌에 주식은 기록적인 상승에서 출발

[글로벌 경제]

- Bloomberg: UN 보고서, “글로벌 상품 교역 회복세”
- Bloomberg: 전문가들, 중국 성장 전망치 올려... 수출 증가로

[오일]

- Bloomberg: 유가, 생산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에 하락
- Bloomberg: 엑손모빌, 2분기 정유 수익 감소

[반도체]

- CNBC: GlobalFoundries, 반도체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강화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MS, 중국 직원에 업무용으로 아이폰 사용 요구
- WSJ: 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유죄 인정 합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Americans are suddenly finding it harder to land a job — and keep it

미국인 이제는 일자리 찾고 유지하기 힘들어져

- 지난 4년 동안 폭발적인 수요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해 노동 시장이 견고한 데다 이직할 경우 봉급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 시장이 구직자에게는 매력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
- 6월에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인 4.1%로 나타났으며 실업자는 6백80만 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만 해도 실업자는 6백만명에 실업률은 3.6%에 머물렀다.
- 이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기까지 대기하는 기간의 평균은 5월

의 경우 8.9주였으나 지난달에는 9.8주였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Powell to Face Fed Critics in Congress on High Rates, Bank Rules

파월 의장, 이번 주 의회 청문회...고금리와 은행 자본 요구 가이드 관련 비판 직면

-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연준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연준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6개월마다 열리는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를 시작한 지 2년 이상이 된 시점이다.
-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불만과 은행들에 대한 자본 비율 요구 강화로 인해 질책성 질문을 의원들로부터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마지막 시점인데 파월 의장은 연준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고금리 정책의 정당성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 민주당 의원들은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내일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연방은행에 간섭할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yields rise as investors look to inflation data due in week ahead

국채 금리 상승 중... 투자자들 물가 등 인플레이 지표 기다려

-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6월 물가에 대한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월요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주에 발표된 연준의 지난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 감소라는 보다 충분한 지표를 보기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 베이스 가량 오른 4.281%에 2년물도 2% 정도 상승한 4.62%를 기록 중이다.

CNBC 기사

Bloomberg: Stocks Rise With Earnings Expectations at Record 어닝 발표 시즌에 주식은 기록적인 상승에서 출발

- 트레이더들이 미 대선과 연준의 향후 조치를 주시하고 기업 어닝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증시는 상승세로 시작하고 있다. 오늘 S&P 500이 상승장으로 마감될 경우 35번째 기록적인 수준을 보게 된다. 그리고 7월 12일에 두 번째 분기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발표하게 된다.
- Citi 지표에 따르면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하향 조정보다 많았고 동시에 블룸버그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수익 기대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N Report Sees ‘Significant’ Changes in Global Goods Trade UN 보고서, “글로벌 상품 교역 회복세”

- 미국의 경제적인 파워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강한 수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작년의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다.
- UNCTAD의 이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올해 상반기에 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품 교역은 2천5백불 규모로 늘어나고 서비스는 1천억불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IRA 정책과 중국의 2025 이니시에이티브와 유럽의 넷제로 산업정책 법이 타겟 상품의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Economists Raise China Growth Forecasts as Exports Improve 전문가들, 중국 성장 전망치 올려... 수출 증가로

- 비록 소비 지출이 둔화되었지만 중국의 수출 전망이 회복되면서 중국의 경제가 상승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 6월 중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명의 이코노미스트 중간치 예상에 따르면 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올해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5월의 전망치 2.8%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글로벌 수요가 바뀐 덕분에 향후 수개월간 중국의 무역 전망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Edges Lower as Investors Take Stock of Risks to Production

유가, 생산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에 하락

- 지난주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허리케인 Beryl의 텍사스 상륙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브렌트유는 86달러에 근접한 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허리케인 베릴은 오늘 월요일 텍사스에 상륙했으며, 이에 따라 석유 회사들은 운영을 조정하고 휴스턴 항구를 폐쇄했다. 지난주 유가는 4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자들은 브렌트유에 대한 순 매수 포지션을 4주 연속 증가시켰다. 이는 여름철 수요 증가와 재고 감소 기대 때문이다.
-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신호로 인해 랠리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변동성 지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Exxon's Refining Profits Drop in Hit to Second-Quarter Earnings

엑손모빌, 2분기 정유 수익 감소

- 석유 회사 엑손모빌(ExxonMobil)이 2분기 정유 수익이 지난 3개월에 비해 1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사이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분기의 14억 달러 수익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RBC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 Biraj Borkhataria는 정제 마진 감소로 인해 엑손의 주당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엑손의 성명은 약 83억 달러의 순이익을 의미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약 10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엑손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1.2% 하락했다.
- 엑손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7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으나,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이익이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CNBC: GlobalFoundries races to find semiconductor talent as demand for chips soars****GlobalFoundries, 반도체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강화**

- 반도체 업계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3년 반도체 산업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칩 산업은 2030년까지 기술자, 컴퓨터 과학자 및 엔지니어 6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1,400만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최대 100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와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인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세계 3위의 반도체 제조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리는 이러한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력직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력 재진입 프로그램과 여성 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Microsoft Orders China Staff to Use iPhones for Work and Drop Android****MS, 중국 직원에 업무용으로 아이폰 사용 요구**

-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직원들에게 9월부터 업무용으로 아이폰만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안드로이드 기기를 업무에서 차단했다.
- 이는 회사의 글로벌 보안 미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국 직원들이 애플 기기를 사용하여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폰에 로그인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인증기와 아이덴티티 패스 앱을 사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외국 모바일 생태계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 구글 플레이가 중국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기기에서 회사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Bloomberg 기사

WSJ: Boeing Agrees to Plead Guilty in 737 MAX Criminal Case 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유죄 인정 합의

- 보잉이 두 번의 737 맥스 추락 사고 이전에 연방 항공청을 속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처벌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 사고로 346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인 보잉에 큰 오점을 남겼다.
- 검찰은 보잉에 2억 4,400만 달러의 추가 벌금과 3년간 4억 5,500만 달러의 안전 프로그램 개선 비용을 요구했다. 또한 3년간 독립적인 모니터를 고용하여 개선 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 합의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 유죄 인정은 보잉에 비즈니스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중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방위 계약에서 중단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며, 보잉은 이에 대한 면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보잉은 228억 달러 상당의 국방부 계약을 수주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S&P500 여름랠리?...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분기 이익 전망"

팩트셋, 작년 동기 대비 8.8% 증가 예상... 4분기째 이익 늘어 통신 서비스·헬스케어 등이 주도... 소비지출 동향 주목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2022년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정보업체 팩트셋의 조사 결과, S&P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8.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4분기 연속 증가하는 것인 데다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